

구약성경 vs. 신약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구분이 생기게 된 배경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기존의 종교지도자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대다수의 국민을 어렵게 만들자 이에 반발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새로운 복음을 담은 교리가 복음서인 신약성경으로 발전되었다. 요한복음 8:42-45에서 예수는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보냈다. 왜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참고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버지로 마귀(여호와)를 두고 있으며 그의 욕망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편에 서 본 적이 없다. 그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왜냐하면 그(여호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마귀가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겠지만, 복음서를 통해 예수께서 구약성경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마귀를 여호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1)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언급한 마귀(악마)가 여호와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구약성경(특히 율법이라고 지칭되는 모세오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위의 대화 속에서 ‘너희 아버지(여호와)’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히 언급하면서 여호와를 악마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존재를 아버지라 부르는 대상은 절대자인 신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으로 유대인들이 믿던 여호와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수를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너희 아버지를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신 진리를 왜곡하고 감추기 위해 천주교에서는 신도들에게 신부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라는 구세주를 내세워 기존의 구약성경에 기반을 두고 세를 길러온 기독교 집단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 서민들을 대변하고 질서와 규범에 대한 새로운 복음(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을 전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신약성경은 제사장을 비롯한 이미 형성된 집권 세력의 이기주의 및 특권의 독점에 대해 반발하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일종의 종교 혁명이었습니다.



Darstellung der Bergpredigt in der Matthäus-Kirche von Kopenhagen

예수가 태어나고 자라던 시절의 유대교는 제사장의 정통성 문제로 분파 간의 갈등이 심했고, 변화된 시대환경에 따라 새로운 교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약성경과 대비되는 새로운 교리를 제시하는 새로운 복음이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하스몬 왕국 시기에 모세가 규정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유대인이 제사장 직분을 차지하자 정통 제사장의 직계에 속한 사람들이 반발하여 제사장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이에 사람들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구약성경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새로운 형태의 복음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격상시켜 제사장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하느님의 말을 전하는 형태로서의 초기 기독교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성숙되었습니다.

“형식과 외모를 중요시하는 의식 위주의 율법은 순수하고 영적인 숭배 방식으로 바뀌고 모든 풍토와 모든 인류의 조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피로 치르는 의식은 보다 무해한 물로 치르는 의식으로 바뀌었다. 신의 호의에 대한 약속이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만 한정되던 것이, 자유인과 노예, 그리스인과 야만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골고루 제시되었다.” 2)

복음서 작성 시점:

“복음서는 마가복음(넓게는 기원후 50~150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나 65~75년 사이에 쓰인 것이 유력)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85~90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이후 요한복음이 저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가복음은 예수 사후 40년이 지난 시점에 복음서 중 최초로 쓰였고, 이후 마태복음은 기원후 90~100년 사이에 유대인 저자가 썼고, 누가복음 및 사도행전 두 권은 100~120년 사이에 비유대인인 저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독일 개신교 신학자들이 3세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복음서를 연구한 결과는, 근본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밀한 조사를 거쳐 이들은 요한복음이 아주 늦게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목격담을 적은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및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적절한 비유를 들며 가르침을 펼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 목공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창한 그리스어로 장문의 직설적인(verbatim)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문헌학자 칼 라흐만(Karl Lachman)을 비롯한 저명한 학자들은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유사성은 가장 간결하고 가장 먼저 나온 마가복음을 참조하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만든 데서 기인한다. 요한복음은 아주 늦게 저술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것이라면, 마가복음만이 예수님 삶의 목격담일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기원후 70년에서 2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믿고 있다.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마가가 목격자일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가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 않는다.” 4)

출처:

- 1) 영광 영, 김병윤, ㈜두레스 경영연구소, 2010: 359-360
- 2) *On Christianity*, Edward Gibbon (1737-1794년), Prometheus Books, 1991: 6-7
- 3) *The Jesus Puzzle*, Earl Doherty, Canadian Humanist Publications, 1999: 193 & 196
- 4) *The Jesus Mysteries*, Timothy Freke & Peter Gandy, Three Rivers Press, 1999: 146